

〈특 집 : 도서관과 한미 FTA〉

한미 FTA 협상에서 도서관 분야 개방여부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

2006. 7. 3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도서관 분야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한미 FTA 협상에서 도서관 분야를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 이와 같은 입장의 근거는 우선적으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도서관 분야 개방을 유보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미국의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국내의 도서관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국내법을 근거로 유보를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 한미 FTA 협상에서 도서관 분야를 개방할 경우 미국의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우리나라 공공 또는 민간부문과 동등한 자격으로 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지만, 도서관

서비스 자체는 공공자원의 성격을 띠므로 대부분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서비스의 대상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공격적으로 국내 도서관 서비스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 NAFTA를 포함해 미국이 체결한 FTA 협상 상대 국가에서 협정으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가 증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구체적 보고가 없다.

2. 그러나 도서관의 발전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도서관 관련 조항은 현행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협상은 반대한다.

-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와 강화는 지적재산권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서관 면책을 포함한 공정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이같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요구를 제기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서관 면책과 공정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 미국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경우 '권리자에게 30일 간의 통지기간을 둘 것'과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면책조항을 어문저작물에만 적용하고 방송물, 실연, 음반 등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일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이같은 요구를 제기할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도서관 발전에 매우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절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관 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

-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절실하다. 특히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에서의 세수 감소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계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장기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관, 특히 전문 사서인력 양성과 배치에 있어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일에 정부와 도서관계, 문헌정보학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력의 동등한 교류와 개방을 통해 양국 도서관계가 상호 교류하고 함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청하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서자격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검토도 요청한다.

4.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의 선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006년 8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계기로 우리 도서관계는 도서관 문화의 선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 우리 도서관계는 최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의 영향력과 향후 대응전략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활용의 핵심 공공부문인 도서관 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과 실제적인 도서관 발전에 정부의 관심과 투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또한 우리 도서관계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 